

국내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

신명선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과 결과
- IV. 논의
- V. 결론

I. 서론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 격차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대학생들을 임의 추출하여 동일 주제로 글쓰기를 한 뒤 전국 대학생의 글쓰기 수준을 파악한다. 다음 대학생들 간 글쓰기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역별(서울/경기·인천/지방)·설립별(국립대/사립대)·계열별(문과/이과/예술계)·성별(남녀)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통해 살펴본 학력 격차 실태 분석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준 저하 문제를 논의하면서 실태 조사 연구의 필요성과 그에 근거한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해 왔지만(2장에서 후술됨) 아직 실태 조사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글쓰기 능력에도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몇 가지 세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우선 대학의 서열화가 명확한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도 대학별로 서열화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 예컨대 높은 학력을 지녔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 학생들이 글쓰기 능력도 높아서 대학별로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라면 명문대학인 A대학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평균이 전반적으로 B대학 학생들보다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의 서열화에 부가된 다음과 같은 통념이 사실인가 여부이다.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지역 학생보다 학력이 높다.”,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들어가기 힘들다”, “문과생이 이과생보다 글을 잘 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똑똑하다.” 등등.(2장에서 후술됨.)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사실인양 소통되지만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

셋째, 글쓰기 능력과 학력과의 연계성 논의를 위한 기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등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상당수 학생들은 교과서 중심의 지필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준비에 대다수의 시간을 소비한다. 학생들의 학력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의 우월한 등급과 높은 수능 점수로 증명된다. 따라서 대학의 서열화는 이와 같은 시험 점수의 서열화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학에 온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도 동일하게 서열화될 수 있을까? 즉 시험 점수의 서열화와 글쓰기 능력의 서열화가 일정 부분 정적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넷째, 그간 국어교육학계에서 ‘학력 격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학력(學力)이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학력 신장’ 등처럼 사용되어 우리 교육의 목표로 논의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넘어 성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학벌 획득과 연계되는 상징적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휴용(2018)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학력’

은 교육의 목표이지만 그것은 인식론적, 규범적, 그리고 갈등론적 성격을 띠는 목표이다.

‘학력’의 갈등론적 성격은 특히 ‘학력 격차’라는 말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된다. 대학의 서열화를 넘어 고교 서열화가 논의되면서 학력 격차 심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그럼에도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아직 국어 능력을 중심으로 학력 격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어 객관식 지필 시험 기반 학력 격차 문제를 포함하여 화법 능력, 독서 능력, 작문 능력, 문법 능력 등 국어 능력 전반을 대상으로 학력 격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계획 수립 시 좋은 참조 자료가 되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육 정책 수립 등에도 필수 기초 자료로 요구된다.

다만 본고는 ‘학력’¹⁾ 그 자체에 대한 탐색을 주로 삼지는 않는다. ‘학력’은 교육학의 핵심 논제로서 ‘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수백 편의 논의가 가능하다. 본고는 상기(上記)한 ‘학력’의 통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개념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학력이 무엇인가’는 학력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고찰뿐만 아니라 본고와 같은 실험적, 실제적 자료 분석이 동반되어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고는 ‘학력’이 국어교육학계의 추후 핵심 논의의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추동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평가를 텍스트 복잡도에 기반을 둔 LQ 지수로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력 격차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들과 더불어 LQ 지수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2장) 다음 대학생 글쓰기 능력 실태 조사 방법과 결과를 기술하고(3장)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4장)

1) ‘학벌’은 학문으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지위나 등급, 파벌 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능력’으로서의 ‘학력(學力)’과 구분된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흔히 학벌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사실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력 격차

학력 격차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사회학적 배경 중심 연구와 심리학적 배경 중심 연구로 대별되는 듯하다. 사회학적 배경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자본 등에 초점을 두어, 심리학적 배경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적 환경 변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왔다.

그런데 이정선(2001)에 의하면 한국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변인 탐색이 중요하다.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데, 가정의 구조적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열정,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 자녀에 대한 기대와 행동 양식,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학업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압력, 지역사회 내 중요한 타자들의 교육적 정보 교류와 상호 지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²⁾

그간 학력 격차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도시와 농촌 지역 차이, 계열별(문과계열, 이과계열, 예술계열) 차이, 성별(남녀) 차이 등이 주목된다. 임성택·강승호(2003)는 각 교과별로 도시와 농촌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고, 학력 격차를 통제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모든 교과 영역에서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통계적

2) 대개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을 자극적 교육환경(stimulating educational environment)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을 취약적 교육환경(deprived educational environment)으로 구분한다. 이 두 환경의 차이는 1) 부모가 학교학습에 부여하는 가치, 2) 학교학습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강화, 3) 학교교육을 받음으로써 기대되는 장래의 보상, 4) 학교 교사의 사기와 능력 등이다.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력 격차를 설명하는 변인은 학습 여건, 아버지 학력, 부모의 교육열, 동료의 특성 지각, 그리고 연습·복습량이었다. 학습 관련 변인들이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를 통제하는 비율은 68.11%였다.³⁾

김현주(2018: 1036)는 두 개 대학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계열별(문과, 이과) 글쓰기 능력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과에 비해 이과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대학 입시 제도 때문으로 보았다. 문과의 경우, 서울 K대 학생들은 80% 정도가, 지역 S대 학생들은 30% 정도가 대입 논술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공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김현주(2018: 1036)는 서울 K대 이공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지방 S대 이공계 학생들보다 높은 데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김현주(2018)는 그 이유가 도시와 농촌 간 고등학교 교육의 차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 K대 학생들의 경우 50% 이상이 수도권 학생들인데 지방 S대 학생들의 경우 대개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보다 이과, 문과 상관없이 더 글을 잘 썼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글쓰기 실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 K대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이 지방 S대 학생들의 쓰기 효능감보다 높았다.

이공계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시정곤(2014)의 연구도 주목된다. 시정곤(2014: 71)은 카이스트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온 경험에 기반하여 이공계 학생들은 글쓰기에 자신감이 없고 상당수 학생들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기술했다. 시정곤(2014: 72)은 한국 대학생의 글쓰

3)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를 통제하는 효과로는, 학습 관련 심리·사회적 환경 변인군의 통제효과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군, 학습량·질 변인군의 순이었으며,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군은 비교적 낮은 통제 효과를 보였다(임성택·강승호, 2003).

기 능력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실태 파악 연구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성별 학력 격차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김준엽·김정은(2013)에 의하면 남학교와 공학에 비해 여학교의 성취 수준이 높으며 학습 태도, 학교 적응 및 풍토 등이 성취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송현정(2015)에서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⁴⁾ 남학생의 평균은 58.72, 여학생의 평균은 60.67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이 1.95점 높게 나타났다.

송현정(2015)은 계열별 평균도 제공하는데 인문계열 61.85, 사회계열 60.52, 자연계열 58.04로 계열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열별, 성별 차이가 주목할 만큼 크지는 않다. 송현정(2015)이 유사 학력을 지녔다고 가정되는 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본고는 그간 지역 간, 계열 간, 성별 간 학력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집단 간 학력 차이를 글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간 차이는 그간 ‘서울 지역, 경기·인천 지역, 지방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던 관례를 존중하여 수용하되, 참고 자료로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계열 간 차이는 ‘문과, 이과, 예술’로 나누고, 성별 차이는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사교육 등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서 지역 간 학력 격차 축소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우수 학원 소재 여부의 영향력 축소). 또 공부 잘 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의대나 이공계를 선택하여 인문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근심 어린 시평도 잦다. 한편 예술계 학생들의 경우 실기 시험 준비로 학업에 몰두할 시간이 부족하여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 수학·

4) 송현정(2015)은 63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은 59.68, 표준편차는 11.29이다.

과학의 비중이 대입에서 중요해지고 남학생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여학생보다 능력을 더 발휘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남녀 학력 차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계열 간, 성별 학력 차이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는 최근 그 필요성이 더 가중된다. 본고에서는 글쓰기 능력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생 글쓰기 수준

이효숙(2017: 49)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격차가 매우 커 대학의 교양 필수 교과로서 ‘글쓰기 교육’에 혼선이 많다.⁵⁾ 이효숙(2017: 50)은 대학은 지속적으로 입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글쓰기 수업에 반영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 역시 실태 파악의 중요성과 관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강조하였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격차와 저하 문제, 학생 간 학력 차이 문제 등은 사실상 오랫동안 주지의 사실처럼 여겨져 왔었다. 김동윤·송현정(2013: 7-8)은 그 원인으로 뚜렷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작문 전담 기관의 부재, 디지털 글쓰기 교육 부재, 교육 내용과 전략의 부실 등을 지적했다.

쓰기 평가 요인은 글의 내용, 구조, 표현⁶⁾ 등 다양한데 평가자 간 차이로

5) 일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입 논술을 위해 고도의 사교육을 받고 일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단 한 번도 글을 써 본 경험이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지문에 대한 이해도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문 쓰기에서도 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이효숙, 2017: 48).

6) 송현정(2015: 36-49)은 특히 대학생들이 글쓰기 능력의 기초가 되는 어문 규범도 제대로 모르며 어휘력이 매우 낮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정희모·유혜령(2012: 163-164)에서도 국내 대학생의 문장 오류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통사적 오류임을 지적하며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신호철(2012)에서는 특히 국어 문장 부호에 주목하였는데, 대학생들의 문장 부호 용법 이해 수준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대

인해 신뢰도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향상 방안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실태 파악이 강조되지만 대규모 평가 시의 여러 난제로 인해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이윤빈(2000), 정희모(2011, 2013ㄱ, 2013ㄴ), 정희모·김성희(2008), 정희모·유혜령(2012) 등의 연구는 주목된다. 이 연구들은 대학생 글쓰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글쓰기 평가의 핵심 요인을 논의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이고 대규모 평가가 가능한 방법 개발 논의의 기반을 닦고 있다.

정희모(2011)는 대학생 작문의 질을 판단할 때 1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들을 정리하고 이중 어떤 요인이 가장 유용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정희모(2011)에서 제시된 기준들은 ‘문장 길이, 문장 화제 수, T-unit(minimal terminal unit) 수, 전체 글자 수/전체 문장 수, 비문 수/전체 문장 수, 응집성 연결요소 수/전체 문장 수, 화제 덩이 수, 어휘 수/T-unit 수, T-unit 수/화제 수, 화제 덩이 수/ 화제 수’ 등이다.

정희모·김성희(2008)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비문 수, 문장 수, T-unit 수, 문장 화제 수, 응집성 연결요소 수, 화제 진행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우수한 필자의 텍스트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 특징을 분석했는데, ‘어휘 수/T-unit 수’와 ‘T-unit 수/화제 수’가 높은 글이 우수 텍스트로 평가받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글은 하나의 의미 단위(T-unit)나 화제에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은 것, 또한 논제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 글이다. 이윤빈(2000)에서도 대학생 글쓰기 결과 분석을 통해 하나의 화제를 깊이 있게 논하는 글이 좋은 글로 평가 받는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조직 긴밀도와 영역 지식적 근거가 높은 글이 좋은 글로 평가받는다. 조직 긴밀도란 필자가 하나의 화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특히 설득적인 글에서 한 의미 단위 당 설명이 많은 것이

학생들의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38.5%로 중·고등학생들의 문장 부호 사용 평균 정답률 27.5%보다 11.0%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생으로서 만족할 만한 정답률은 아니었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어휘 수/T-unit 수’가 좋은 텍스트의 특징을 언제나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희모(2011)는 대학생 중 유능한 필자, 대학생 중 미숙한 필자,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글을 분석하였는데 전문가 집단의 수치가 대학생 필자보다 더 낮게 나왔다. 대학생 중 유능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 간 차이가 너무 적어서 세 그룹이 균등 분할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글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주요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에서는 다양한 절을 사용하여 문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높인 것을 더 좋은 문장으로 파악하고, 이를 문장의 성숙도(maturity)나 유창성(fluency)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유재임, 2005: 271).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절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며, 문장에 따라 절의 변화가 많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이재성, 2009: 31).

그럼에도 문장의 길이는 문장의 성숙도(syntactic maturity)를 보여 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절당 평균 단어 수는 대학 1학년, 2학년, 3~4학년, 대학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5.64, 5.79, 6.21, 7.28로 늘어나며(정희모, 2011: 273), 미숙한 필자가 능숙한 필자가 되면서 외적으로는 더 어려운 어휘와 더 긴 문장을 쓸 수 있게 된다.

정희모(2011)는 문장의 길이가 우수한 텍스트 여부를 100%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문장수사학의 기본 전제를 들어 글쓰기에서 문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장수사학은 짧은 문장을 기본으로, 수식적인 절과 구를 붙여 점차 누적 문장을 생성해 가는 과정을 생각이 생성·심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

문장의 길이처럼, 영어권에서는 텍스트의 질을 판단하는 데 응집성(cohesion) 연결요소 분석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논의되는데⁷⁾ 한국어에서는 그

7) 영어권의 응집성 분석 도구 TACCO(Tool for the Automatic Analysis of Cohesion)의 경우도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응집성이 텍스트의 질을 100% 결정할

렇다고 보기 어렵다. 영어권의 경우 T-unit당 응집성 연결요소의 수 분석 결과, 우수한 필자의 텍스트에서는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보다 지시, 접속, 어휘적 연결요소가 모두 사용 비율이 높았다(Witte & Faigley, 1981; 정희모·김성희, 2008: 404 재인용).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어휘적 연결요소이다. 미숙한 텍스트는 동일 단어 반복이 많은데 우수한 텍스트는 동일어 반복 사용 비율이 낮고, 같은 항목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 사용 비율이 높았다. 우수한 필자일수록 다양한 어휘를 통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매우 능숙하게 처리한다.

그러나 텍스트 응집 관계를 연구한 정희모·김성희(2008: 415)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우수한 필자의 텍스트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 사이에 응집성 연결요소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우수한 필자의 텍스트에서 나온 응집성 연결요소의 수는 15.35개로,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서 나온 13.86개보다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t=1.01$, $p>.05$) 다만 정희모(2011: 292-293)에 의하면 한국어의 경우도 우수한 필자일수록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보다 유사어나 상위, 하위 범주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글쓰기 평가에는 많은 요인들이 개입된다. 사실상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글쓰기 평가를 할 경우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기 논의를 통해 드러난바, 글쓰기 평가 시 어휘와 문장 평가가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1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한 듯하다. 이 요소들은 후술할 텍스트 복잡도와 독서지수 논의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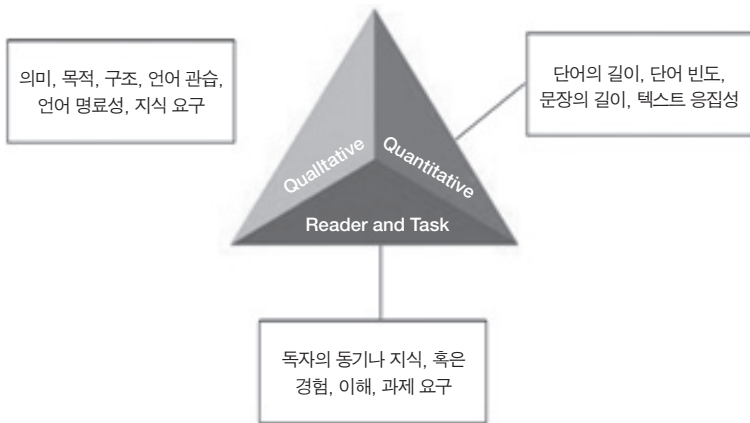
관련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실태 파악을 위해 컴퓨터 기반 쓰기 평가, 대규모 쓰기 평가 등이 요구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쓰기 평가 방법론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교사나 강사에게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1차적 양적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교사나 강사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쓰기 결과물의 질적 특성을 좀 더 쉽고 합리적으로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로서는 그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재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1차적 평가 자료 제공의 유용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3. 글쓰기의 수준과 독서지수

텍스트 복잡도는 텍스트 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미국 공통 중핵 교육과정(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CCSS)에서는 텍스트 복잡도(Text Complexity)에 관여하는 요인을 양적 요인, 질적 요인, 독자-과제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최숙기(2012)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텍스트 복잡도 측정을 위한 삼원 모형(최숙기, 2012)

텍스트 복잡도는 이독성(Readability) 연구와 연결되는데, 대부분 위 텍스트 복잡도 관련 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식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질적 요인이나 독자 및 과제 요인의 경우 정성적인 성격을 띠며 변수가 많아 일관된 분석 도구나 기준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텍스트 복잡도의 양적 요인 중 어휘의 난이도 및 문장의 길이는 핵심 고

려 요인이다. 두 요인만으로는 텍스트 복잡도 측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비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객관적 기준인 데다 그 설명력이 꽤 높아(60% 이상) 주목받고 있다. 서혁·이소라·류수경·오은하·윤희성·변경가 외(2013)에 따르면 영문 이독성 공식 약 20개를 살펴본 결과 이독성 공식에서 고려하고 있는 어휘 요인은 낱말 길이(5), 낱말 난이도(8), 접속어(1), 인칭대명사(3), 서로 다른 단어(3), 전치사(4) 등이고, 문장 요인은 문장 길이(12), 단문(1), 구문수치(1), 문장심도(1) 등이었다(괄호 안은 각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공식의 수). 문장 요인 중 문장 길이 요인이 12개 공식에서 채택되어 이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이 낱말의 난이도 8개이다. 국문 이독성 공식의 경우, 어휘 요인으로는 서로 다른 단어(1), 낱말 난이도(6), 지시어(1), 접속어(1), 동음이의어(1), 전문용어(1), 함축어(1), 인칭대명사(3), 한자어(2), 외래어(1) 등이, 문장 요인으로는 문장 길이(7), 단문(3), 대화 문장(1) 등이 고려되었다. 국문 이독성 공식 역시 문장 길이가 7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낱말 난이도로 6개이다.

텍스트 복잡도는 텍스트의 난도와 관련되어 독서지수 산출이나 쓰기 결과물 평가 시 활용된다. 독서지수는 미국 국가 중핵 교육과정 CCSS에서도 적극 추천되고 있는데 이독성 지수에 가깝다. 대개의 경우 텍스트 복잡도가 높으면 독서지수도 높아 어려운 글로 평가된다. 독서지수가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필자라면 대개 글쓰기 능력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 독서지수 산출 시 어휘의 난이도 및 문장의 길이가 주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경우 독서지수가 높은 글을 쓸 수 있는 필자라면 어려운 어휘와 긴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필자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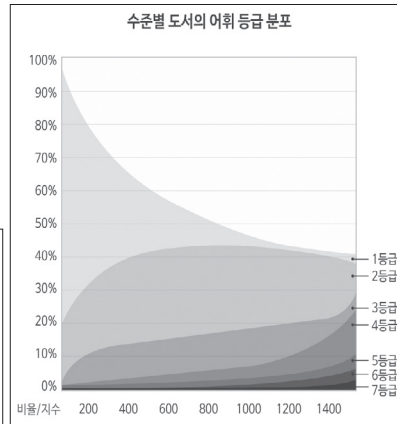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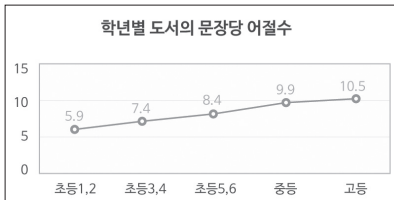
미국의 대표적인 독서지수는 렉사일(Lexile) 지수로 알려져 있다. (주) MetaMetrics에서 개발한 것으로 역시 어휘 난이도와 문장 길이 등을 고려하였다. 렉사일 지수는 CCSS에 소개되어 학교 독서 교육에 널리 활용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표 1〉 LQ 지수 급수

급수	적정대상	LQ범위
7급	초등1 ~ 초등2	100 ~ 400
6급	초등3 ~ 초등4	350 ~ 630
5급	초등5 ~ 초등6	560 ~ 840
4급	중등1 ~ 중등2	720 ~ 1000
3급	중등3 ~ 고등1	910 ~ 1190
2급	고등2 ~ 고등3	1120 ~ 1450
1급	대학생 ~ 일반인	1320 ~ 1850

국내에서도 독서지수가 (주)날말에서 렉사일 지수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이 회사의 독서지수는 LQ(Lectio Quotient) 지수로 불리며 이미 몇몇 교육청과 교보문고 등에 서비스되고 있다. LQ 지수는 최하 100부터 최고 1,850까지의 척도로 텍스트의 난도를 표시하며 렉사일 지수처럼 학교 독서 교육에 활용 가능하도록 급수별 대상 수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LQ 지수가 1,200이면 2급 수준으로 고교 2, 3학년 학생이 읽기에 적당한 책이다.

LQ 지수는 어휘의 빈도와 난도, 문장의 길이를 핵심 분석 기준으로 한다. 어휘의 난도는 의미적 어려움(Semantic Difficulty), 어휘의 빈도는 단어의 친숙도, 문장의 길이는 구문의 복잡함(Syntactic Complexity)과 관련된다. 어휘의 빈도와 난도는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2003년 이후 어휘 수를 확충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1등급 어휘는 기초어휘이며 LQ 지수가 높을수록 난도 높은 어휘가 사용되며 문장의 길이가 길다.



〈그림 2〉 LQ 지수의 문장당 어절 수와 어휘 등급 분포

LQ 지수는 이미 많은 책들의 독서지수 측정과 교육적 활용을 통해 그 신뢰성을 인정 받아왔으며 홈페이지(www.natmal.com)에 공식적으로 9,360권의 LQ 지수를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1학년 전래동화』(두 그루, 2005)의 LQ 지수는 310,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 2008)의 LQ 지수는 1260이다.

본고도 LQ 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LQ 지수가 텍스트 복잡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독서지수이지만 쓰기 결과물의 분석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술(前述)한바 텍스트 복잡도의 양적 측면이 글의 우수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 결과는 통계적, 확률적 가능성을 기술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국내외 교육 시장에서 독서지수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미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만큼 측정 도구로서의 적절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 방법과 결과

1. 분석 방법

연구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가을에 EBS ‘당신의 문해력’ 팀의 도움을 받아⁸⁾ 약 한 달간 전국의 24개 대학 1,175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학 작문’(대학마다 이름은 다름) 형태의 수업 시간에 동일 주제로 글쓰기를 하였다. 수업 시간에 교수의 감독 하에 한 시간의 시간을 주고 실시되었다. 해당 수업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듣는 수업이며 쓰기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관계 단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였다.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수거하여 텍스트파일화하였다. 대학별 학생 수와 분포는 분량 관계상 연구 결과 부분에서 후술된다.

다음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주)날말에 부탁하여 LQ 지수와 사용 어휘의 등급을 파악한 뒤 아래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휘 사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3) 대학생 글쓰기 능력에 학력 격차는 존재하는가?
 - 서울지역, 경기 인천 지역, 지방 지역 학생 간 차이
 -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차이
 - 문과계열, 이과계열, 예술계열 학생 간 차이
 - 남녀 학생 간 차이

8) 강사 섭외, 글쓰기 시행, 글쓰기 결과물 수거 등등 시행과 관련된 일을 모두 담당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다만 LQ 지수는 독서지수의 일종이므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은 되기 어렵다.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하나의 읽기 텍스트로 간주하여 해당 텍스트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글쓰기 수준보다 읽기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생들의 LQ 지수는 글쓰기 결과물의 수준보다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2〉 LQ 지수의 읽기와 쓰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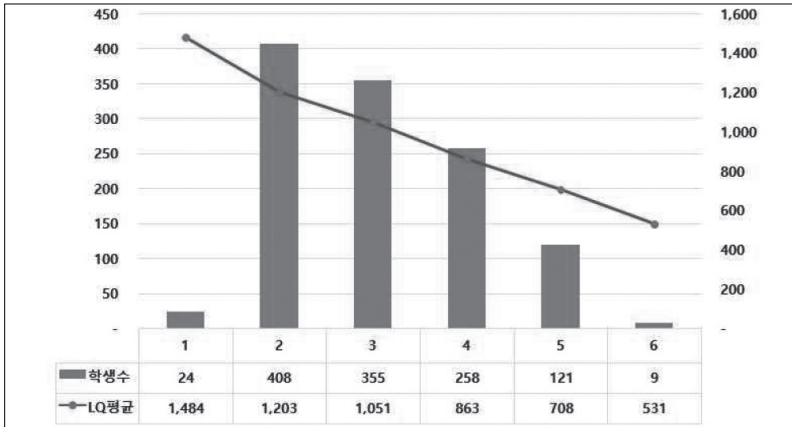
Reading 기준				Writing 기준	
급수	학년 구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급	대학 이상	1390	1850	1090 이상	
2급	고등2~고등3	1140	1380	840	1080
3급	중등3~고등1	950	1130	650	830
4급	중등1~중등2	780	940	480	640
5급	초등5~초등6	590	770	290	470
6급	초등3~초등4	410	580		280 이하
7급	초등1~초등2	200	400		

(주)날말은 독서 능력과 쓰기 능력 간 차이를 고려하여 LQ 지수 조정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위 〈표 3〉 참조). 예컨대 학생들이 2급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학생은 1급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하 결과 분석에서 이것도 고려하도록 한다.

2. 분석 결과

1,175명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총 문장 수는 23,421, 문장당 평균 어절 수는 13.66개였다.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하나의 텍스

트로 간주하고 LQ 지수를 측정한 결과 24명만이 1수준에 해당하였으며 2수준이 408명이었다. 상당수 학생들은 3수준에 해당하였으며 4수준과 5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도 각각 258명, 121명에 이르렀다.



〈그림 3〉 LQ 지수에 따른 학생들의 분포도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 중 단 2%(1157명 중 24명)만이 대학 수준에 맞는 1급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으며 대개의 대학생들은 2급 수준 즉 고등학생이나 그 이하 수준의 글을 작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기반으로 읽기 능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앞의 <표3>을 참조하여 LQ 지수를 재산출하였다. 전체 학생의 47.4%(1175명)가 LQ 지수 1,09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대학생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반 정도는 대학 수준의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3〉 대학생들의 조정 LQ 지수

난이도 등급	구분	학생수	비율	누적	누적
1(1090이상)	대학생 이상	557	47.4%	557	47.4%
2(840~1080)	고등2~고등3	407	34.6%	964	82.0%
3(650~830)	중등3~고등1	187	15.9%	1,151	98.0%
4(480~640)	중등1~중등2	22	1.9%	1,173	99.8%
5(290~470)	초등5~초등6	2	0.2%	1,175	100.0%
총합계		1,175	100.0%		

총 24개 대학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대학별 LQ 지수 평균은 다음과 같다. 모든 대학 학생들의 LQ 지수 평균이 1급(대학생~일반인 수준, LQ 1320-1850)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A대학만 2급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LQ 1120-1450)에 해당했고 그 외 모든 대학 학생들의 평균 LQ 지수는 3급(중3~고1 수준, LQ 910~1190)에 머물러 있었다.

〈표 4〉 대학별 LQ 차이

학교명	학생수	LQ 지수 평균
A	25	1,131
B	37	1,111
C	87	1,092
D	132	1,090
E	37	1,090
F	11	1,081
G	40	1,079
H	52	1,079
I	25	1,073

J	3	1,067
K	13	1,061
L	11	1,027
M	29	1,020
N	86	1,018
O	68	1,017
P	134	1,014
Q	8	1,014
R	4	1,013
S	71	1,005
T	44	1,003
U	37	997
V	23	995
W	112	984
X	86	929
총 24개	1175	1,034

대학별 LQ 지수 차이도 명확하게 존재하였다. A대학 학생들의 LQ 지수 평균이 1,131인데 비해, X대학 학생들의 LQ 지수 평균은 929에 불과했다. 사실상 U, V, W, X대학 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A대학과 X대학 사이의 LQ 지수 점수 차이는 202점이나 나서 이들의 차이는 LQ 지수 단계상 두 단계에 이른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은 LQ 지수상 2급~4급 수준으로 대학별 차이가 두 개 급에 이른다.

대학별 서열화가 명확한 한국 사회에서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학력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학력과 글쓰기 능력, 수능 및 내신 점수와 글쓰기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개별 학생들의 특성은 논할 수 없지만,

집단 평균으로 볼 때에 학력이 높은 학생 집단이 혹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 집단보다 글을 잘 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항 풀이 능력과 학력과의 관련성도 높은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수능 및 내신 점수가 객관식 문제 풀이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항 풀이 능력이 사고력 전반을 설명할 수는 없는 만큼 이러한 능력과 ‘학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본 논의 결과는 LQ 지수 기반의 확률적 논의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A대학의 경우에도 글쓰기 수준이 대학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대입 준비를 위해 글쓰기 교육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4개 대학을 서울 지역 대학, 경기·인천 지역 대학, 지방 대학으로 나누어 이들의 LQ 지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경기·인천 지역: 기타 지방 지역의 LQ 지수는 1062: 1039.5: 1002.5로서 서울 지역, 경기·인천 지역, 기타 지방 지역의 순으로 LQ 지수가 높다. 점수상으로 볼 때에 서울 지역 학생들이 가장 쓰기 능력이 높고 그 다음이 경기·인천 지역이며, 기타 지방 지역 학생들이 가장 낮다.

〈표 5〉 서울 지역, 경기·인천 지역, 지방 지역 대학생의 LQ 지수

학교	학생 수	LQ 지수 평균
서울 지역	499	1062
경기·인천 지역	121	1039.5
기타 지방 지역	555	1002.5
총계/평균	1,175	1034

학생들의 LQ 지수가 1,002에서 1,062 사이에 존재하는데 3급 수준이다. 3급은 910~1190 사이인데 다시 910~1003.3(하)~1096.6(중)~1190(상)의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LQ 점수 상으로는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 기타 지방 지역의 점수 차이가 ± 30 정도여서 각 지역 간 격차가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LQ 지수 구간으로 분석한다면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경우 각 1039.5, 1062로 모두 3급 내 중 수준에 속하지만 기타 지방 지역의 경우 1002.5로 3급 내 하위 수준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 기타 지역 학생들 간 LQ 지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 학생들은 비슷한 한 그룹으로 묶여 기타 지방 지역 학생들과 유의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 학생과 사립대 학생의 LQ 지수는 국립대 학생: 사립대 학생이 1026: 1043으로 사립대 학생들의 LQ 지수가 더 높았다. 국립대만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국립대 학생들의 LQ 지수 평균이 전체 대학생의 LQ 지수 평균보다 낮다. 국립대의 상당수가 기타 지방에 존재한 데다 서울 소재 사립대 학생들의 LQ 지수가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국립대 학생과 사립대 학생의 LQ 지수

학교	학생 수	LQ 지수 평균
국립대(서울+지방)	604	1026
사립대(서울+지방)	571	1043
총계/평균	1,175	1034

그러나 LQ 지수 1,026과 1,043은 모두 LQ 지수 3급 내 중 수준으로 동일 그룹에 속한다. 따라서 국립대와 사립대로 대별해서 볼 때에 점수상으로는 국립대 학생들보다 사립대 학생들의 LQ 지수가 높지만 전체적으로 두 그

룹 간 차이가 크게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들을 문과, 이과, 예술, 기타(융합계열, 대학에 따라 문이과 구분이 없는 학과가 있었음.)로 나누어 이들의 LQ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계열별 LQ 지수

계열별	학생수	LQ 지수 평균
문과	451	1,062
이과	606	1,014
예술	23	972
기타	95	1,039
총 합계	1,175	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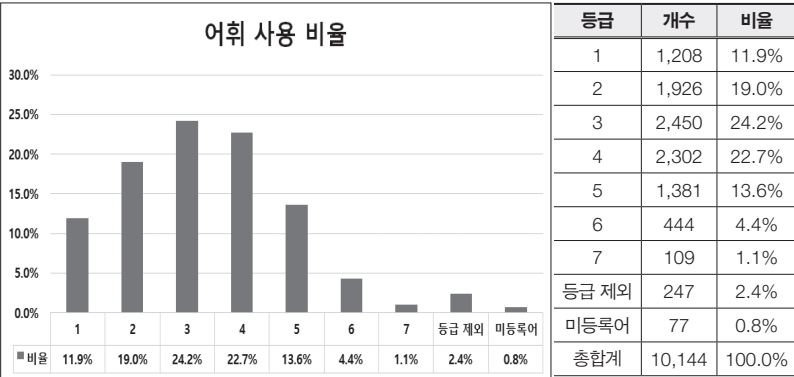
문과 계열: 기타 계열: 이과 계열: 예술 계열 학생의 LQ 지수는 1062: 1039: 1014: 972로 나타났다. 예술 계열과 기타 계열 학생 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과 계열 학생들의 LQ 지수가 가장 높고 예술 계열 학생들의 LQ 지수가 가장 낮다. 문과와 이과 학생 간 LQ 지수 차이도 48 점이나 존재하여 점수상으로만 보면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보다 더 글을 잘 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14점과 1062점은 모두 3급 내 중 수준으로(1003.3~1096.6)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은 모두 동일 수준의 그룹에 속하여 계열별 글쓰기 능력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별 차이도 확인해 보았다. 흥미롭게도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의 LQ 지수가 1048: 1018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LQ 지수가 여학생들보다 30점 더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 중등 여학교의 학력이 남학교보다 더 높음이 지적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1048점과 1018점은 모두 LQ 지수 3급 내 중 수준으로 남녀 성별 차이가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8〉 성별에 따른 LQ 지수

성별	학생 수	LQ 지수 평균
남자	600	1,048
여자	562	1,018
정보 없음(성별 미입력)	13	1,057
총합계	1175	1,034

이제 글쓰기 결과물에 나타난 어휘적 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 텍스트의 어휘 계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사용 어휘의 등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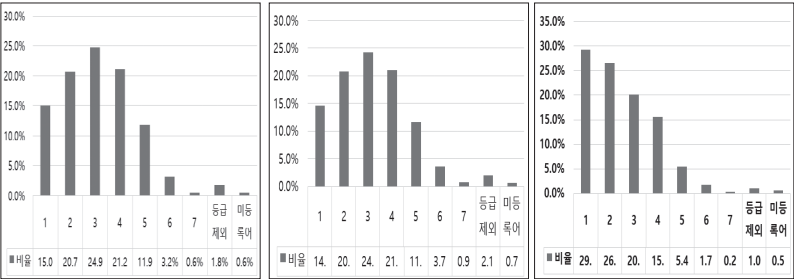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3등급 수준의 어휘가 가장 많고 4등급, 2등급 순서로 많다. 김광해(2003)에 따르면 3등급 어휘는 정규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접하게 되는 어휘로서 구어 생활에 익숙하던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문자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어휘들이다. 문자언어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4등급 수준의 어휘들은 사춘기 이후 접하게 되는 어휘들로서 3등급 수준의 어휘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단어들이며 2등급 수준의 어휘는 정규 학교 교육 이전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 1등급 어휘는

기초어휘를 가리킨다. 1, 2등급 어휘가 대략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학생들은 대체로 문자언어적 특성이 높은 고급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별 어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 계열별 어휘 사용 양상

어휘 등급	문과		이과		예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1,064	15.0%	1,083	14.7%	593	29.2%
2	1,468	20.7%	1,538	20.8%	537	26.4%
3	1,762	24.9%	1,800	24.4%	409	20.1%
4	1,504	21.2%	1,561	21.1%	315	15.5%
5	841	11.9%	864	11.7%	109	5.4%
6	224	3.2%	270	3.7%	35	1.7%
7	42	0.6%	68	0.9%	5	0.2%
등급 제외	129	1.8%	153	2.1%	20	1.0%
미등록어	45	0.6%	54	0.7%	11	0.5%
총합계	7,079	100.0%	7,391	100.0%	2,034	100.0%



〈그림 5〉 계열별 어휘 사용 양상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비해 예술 계열 학생들의 어휘 사용 양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문과와 이과 학생들이 3등급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2등급과 4등급 어휘를 차순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 예술 계열 학생들은 기초어휘인 1등급 어휘 사용 비율이 가장 높고 쉬운 단어 순으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계 학생들의 수가 적어 이들의 텍스트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분명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계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다음 두 글을 보자. 하나는 예술계 학생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이공계 학생의 글이다. 전자가 경험을 기반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면, 후자는 다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사용된 어휘의 수준과 양상이 다르다. 전자의 ‘지치다, 싸우다, 뽀죽하다, 시덥잖다’ 등과 후자의 ‘부작용, 마인드, 전제, 의지’ 등의 단어들이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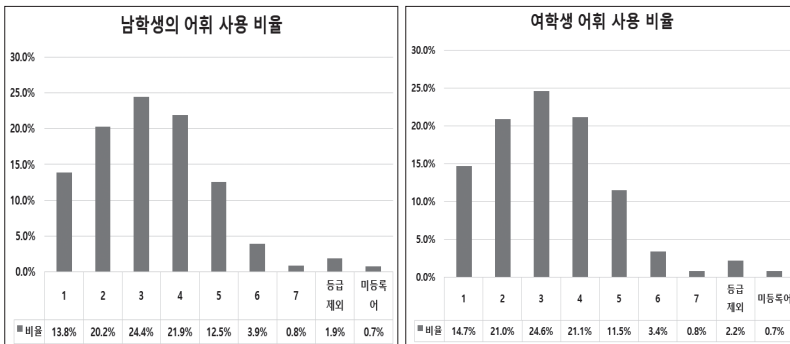
예시1)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서로 지쳐있는 상황에 뽀죽한 언행들로 서로의 화만 돋구었고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제일 친한 친구들과도 시덥잖은 이유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은 시기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 때문에 별거 아닌데도 싸우게 되어서 이때 오는 상실감도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계단절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락- (지방 국립대 예술계 학생의 글)

예시2) 코로나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사회의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큰 문제 중 하나가 사회에서 인간 사이의 여러 관계 단절 문제이다. -중략- 우선 마인드부터 바뀌어야한다. 관계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서로의 만남을 전제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져왔다. -중략- 또 다른 하나는 극복 의지이다. -하락- (서울 사립대 이공계 학생의 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사용 어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10〉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휘 사용 양상

등급	남학생 사용 어휘		여학생 사용 어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1,072	13.8%	1,099	14.7%
2	1,567	20.2%	1,569	21.0%
3	1,890	24.4%	1,844	24.6%
4	1,698	21.9%	1,583	21.1%
5	969	12.5%	861	11.5%
6	299	3.9%	254	3.4%
7	63	0.8%	58	0.8%
등급 제외	144	1.9%	161	2.2%
미등록어	52	0.7%	56	0.7%
총합계	7,754	100.0%	7,485	100.0%



〈그림 6〉 성별 어휘 사용 비율

3등급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성별 차이가 없으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4, 5, 6등급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에 비해 1, 2등급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앞서 성별 LQ 지수 비교 시 남학생들의 LQ 지수가 여학생보다 다소 높았던 점도 참고가 된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며 LQ 지수도 조금 더 높은 텍스트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쓴 글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해당 글의 독서 지수를 측정했을 때 대학 수준에 맞는 1급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단 2%에 불과했다. 대개의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이나 그 이하 수준의 글을 작성했다. 또 우리나라 대학생 중 반 정도(47.4%)만이 대학 수준의 글을 혼자서 이해할 수 있었고 나머지 반은 대학 수준의 글을 읽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개 3등급 수준의 어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 4등급, 2등급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구어보다는 문자언어적 특성이 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예술계 학생들의 경우 1, 2등급 수준의 어휘 사용이 높아 구어적 특성이 짙은 어휘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술계 학생들의 어휘 사용 특징에 대해서는 추후 후행 연구가 필요하다.

글쓰기 능력 역시 학력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LQ 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설립별, 계열별, 성별로 학력 격차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들의 학력 격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요인은 지역별 요인이었다. LQ 지수 상으로는 서울 지역, 경기·인천 지역, 기타 지방 지역 순으로 점수가 높았는데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 지역 학생들은 동일 그룹으로 묶을 수 있었고 이 그룹이 지방 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리하면, 대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LQ 지수 검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준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기타 지방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저하 문제는 202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 초·중·고 학생 글쓰기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박혜영·이상하·이명진·이미영·주현우·백은진(2021: 228)에서 전국 초·중·고 각 3개 학교씩(서울은 4개 고등학교) 64개교 1,400여 명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전체적으로 정보 전달하기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설득하기와 친교 및 정서 표현하기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저하 문제가 대학 교육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학력 격차 문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국어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가장 최근의 결과인 이재봉·남민우·전주현(2021)에 의하면 국어 과목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인 4수준은 대도시 26.4%, 중·소도시 22.1%, 읍·면지역 18.9%의 비율로 나타나 대도시 학생들의 국어 성취도 수준이 가장 높다.⁹⁾

아마도 중요한 문제는 초·중등에서의 글쓰기 능력 저하 문제나 지역별 격차 문제가 대학 교육을 통해 극복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실력은 대학 교육을 통해 더 향상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셈이다.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이 저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입 위주 교육으

9) 흥미로운 것은 1수준 즉 가장 낮은 수준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4수준과 1수준에서는 대도시의 비율이, 3수준과 2수준에서는 읍·면지역의 비율이 각각 나머지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로 인한 글쓰기 교육의 침체 때문으로 판단된다. 박혜영 외(2021: 227)에서 밝힌 것처럼 글쓰기 능력의 발달은 학생의 글쓰기 경험과 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학생의 글쓰기 빈도와 글쓰기 평가 점수(성취)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데 특히 설득 목적의 긴 글 쓰기 빈도와 상관이 가장 높다.¹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는 수능과 객관식 내신 시험 준비로 글쓰기보다는 문제 풀이에 주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력 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는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지수(Index of Economic, Social, Cultural Status; 이하 ESCS)이다. 통계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부(副)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ESCS와 학력 격차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최인선·김명화·김수진·김현정·이신영(2021)에 따르면 OECD를 중심으로 최근 국제 사회경제적 직업지위 지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와 학력과의 관계도 조명받고 있다.

PISA 2015 이후 우리나라의 학업 성취도는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 최인선(2021)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학습격차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ESCS에 따른 성취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SCS와 학력 격차는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ESCS를 최상위 10%, 최하위 10%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읽기 영역에서 하위 10%의 차이가 상위 10%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ESCS에 따른 성취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

10) “학생의 글쓰기 경험과 태도가 글쓰기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대규모의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학교 수업과 과제를 통해 접하는 글쓰기를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하는가, 또 글쓰기 후에 구체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는가는 글쓰기 평가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글쓰기 유형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글쓰기를 많이 하고그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자주 받는 것이 글쓰기 능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이 글쓰기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역시 글쓰기 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영 외, 2021: 227).

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사회경제적 부(副)가 기타 농촌 지역보다 높아 대도시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LQ 지수 점수상으로는 국립대 학생보다 사립대 학생이, 다른 계열 학생보다 문과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능력이 더 높았다. LQ 지수 점수 상으로 대략 ± 30 점 가량 차이가 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정밀한 추가 비교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¹¹⁾

우리나라 국립대는 각 지역별로 설립되기 때문에 서울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개 지방에 위치해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대학생의 학력이 높기 때문에 국립대보다 사립대 학생들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학력 격차 정도와 그 추이가 지속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과생들의 LQ 점수가 이과생보다 높았다. LQ 지수 단계로 볼 때에는 동일 그룹에 속하여 이 차이를 유의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과생의 글쓰기 능력이 저조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문과생의 글쓰기 능력이 이과생보다 높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임을 고려할 때 계열별 글쓰기 능력 차이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의대나 이공계 선호 현상이 심화하여 상위권 고등학생들이 이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감안할 때¹²⁾ 다음 파생 연구 문제가 발생한다.: “학력과 글쓰기 능력의 관계가 정적 상관관계라고 할 때에 학력이 높을수록 글쓰기 능력도 높아야 하므로 동일한 글쓰기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과생의 글쓰기 능력이 문과생보다 높을 것인가?” 글쓰기에 대한 태도나 경험의 유무 등 글쓰기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1)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이다.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12) 최근 취업난을 드러내는 유행어 중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나 ‘지여인(지방대, 여자, 인문대)’과 같은 단어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 성별 차이는 주목된다. 물론 LQ 점수 상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이 동일 그룹으로 묶여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은 주목된다. 매년 치러지는 국가 학업 성취도 국어 검사 결과 추이에서 중등학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계속 더 좋은 점수를 받아 왔다. 이재봉·남민우·전주현(2021)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학업 성취도 국어 과목 성별 성취 수준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4수준은 남학생 17.2%, 여학생 29.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PISA 시험 결과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읽기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 점수보다 높았다(최인선 외, 2021: 301).

이와 관련하여 국어 점수와 글쓰기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국어 성적이 학력을 드러내는 요소이고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학력의 표지라면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글쓰기 능력도 좋다는 가정이 성립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상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최근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 추이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재봉·남민우·전주현(2021)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여학생의 4수준(가장 높은 수준) 비율은 감소했다. 또 김준엽·김정은(2013)에서도 남학교와 여학교 간 학력 차이가 2010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기술하였다.¹³⁾ 우리나라 학업탄력적 집단의 성별 추이 분석 결과에서도 여학생의 학업탄력적 집단 비율이 PISA 2012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은 PISA 2015에 비해 PISA 2018에서 그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다(최인선 외, 2021: 296).

한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물을 텍스트화한 뒤 컴퓨터로

13)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학교별이 높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가 그 한 예시는 될 수 있을 터인데, 강남서초 지역의 대표적인 남학교인 H고등학교(대치동 소재)와 S고등학교(반포동 소재)의 전국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근처 여학교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리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의 글씨가 잘 알아보기 힘들어 일일이 원고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있었는데, 자필 글쓰기 결과물 평가와 컴퓨터 글쓰기 결과물 평가 시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글쓰기 평가 시 남학생들이 글씨를 잘 못 써서 여학생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글씨를 더 못 쓰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글쓰기 평가 시 신뢰도 확보 문제와 관련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장르별 글쓰기 능력 차이와 관련된다. 김현주(2018)에 따르면 계열별로 장르별 글쓰기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대개 남학생들이 많은 이공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이, 여학생들이 많은 문과 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설명적 글쓰기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실시한 글쓰기가 주장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LQ 점수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왔을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의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하향 조정되어 있었으며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였다.

대학생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 문제는 그동안 국어교육학계에서 이 슈화되지 못했다. 본고는 글쓰기 능력을 학력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설립별, 계열별,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여 이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을 기술하였다.

근본적으로 학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 개념은 지나치게 넓어 그 의미를 정밀하게 규정짓기 어렵다. 아마도 관점과 층위에 따라 개념 재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어교육학 내에서 국어 능력과 학력과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궁구하는 논의가 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한 ‘수능이나 학교 내신 국어 시험 성적이 학력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도 ‘학력’ 개념의 정밀성과 연계된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들은 우리 사회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변화와 계열별 선호 현상, 교육사회적 변화 추이 등에 대한 여타 가정과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국어교육학계에 ‘학력 격차’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이슈화되고 본고에서 제기한 추가 연구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박혜영(2019: 79)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sment for Educational Progress)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작문 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취집단별, 성별, 인종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에 따라 작문 능력의 실태를 분석하여 질 높은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작문 능력을 중심으로 학력 격차 문제 해결의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글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며,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경우 특히 더 연구와 관심이 부족하다. 중등 교육의 질 관리를 기반으로 대학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실태 파악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져 중고등 교육에서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01.29. 투고되었으며, 2022.02.16. 심사가 시작되어 2022.03.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준엽·김정은(2013), 「학교 내 학력격차 추이 분석 및 학교특성 간 차이 탐색」, 『교육평가연구』 26(5), 959-980.
- 김현주(2018), 「대학 글쓰기의 실제와 발전 방안-상명대학교 글쓰기 강의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1033-1049.
- 두 그루(2005), 『1학년 전래동화』, 서울: 깊은책속옹달샘.
- 박혜영(2019), 「한국과 미국의 국가수준 작문 평가 비교」, 『한국리터러시학회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79-87.
- 박혜영·이상하·이명진·이미영·주현우·백은진(2021), 「평가를 활용한 초·중등학생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II)(RRE 2021-7)」,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휴용(2018), 「학력 개념의 세 층위를 통해 분석한 학벌주의와 교육열」, 『교육사상연구』 32(3), 97-128.
- 서혁·이소라·류수경·오은하·윤희성·변경가·편지윤(2013), 「읽기(독서) 교육 체계화를 위한 텍스트 복잡도 상세화 연구(2)」, 『국어교육학연구』 46, 253-290.
- 송현정(2015), 「대학생 글쓰기 기초를 위한 문법 진단 평가 분석 연구」, 『국어교육연구』 35, 31-57.
- 시정근(2014),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과제와 전망」, 『작문연구』 21, 57-87.
- 신호철(2012),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문장 부호 교육 방안 연구-대학생의 문장 부호 사용과 인식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3, 281-314.
- 유시민(2008), 『거꾸로 읽는 세계사』, 서울: 푸른나무.
- 이재봉·남민우·전주현(202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고등학교 국어(ORM 2021-5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성(2009), 「문장 능숙도에 따른 대학생 글의 문장 특성 연구」, 『작문연구』 9, 한국작문학회, 9-38.
- 이정선(2001),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업성공과 사회자본의 관계-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4(3), 한국교육인류학회, 253-288.
- 이효숙(2017), 「대학생의 글쓰기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기능과 진단평가지 개발」, 『리터러시연구』 21, 47-67.
- 임성택·강승호(2003), 「도시-농촌간 학력격차 통제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41(3), 399-422.
- 정희모(2011), 「대학생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특성 비교」, 『국어교육』 135, 267-303.
- 정희모(2013 ㄱ), 「작문 연구의 방향과 전망」, 『작문연구』 19, 9-33.
- 정희모(2013 ㄴ), 「작문에서 문법의 기능과 역할」, 『청람어문교육』 47, 137-168.
- 정희모·김성희(2008),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2, 393-426.
- 정희모·유혜령(2012), 「대학생 글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오류 양상」, 『어문론집』 542, 147-172.

- 최숙기(2012), 「국어 교사의 텍스트 복잡도 모형을 활용한 교과서 제재 정합성 평가 향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46, 361-404.
- 최인선·김명화·김수진·김현정·이신영(2021),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상위국 성취특성 및 교육맥락변인과의 관계 분석(RRE 2021-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Witte, S. P. & Faigley, L. (1981), "Coherence, Cohesion, and Writing Qualit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2(2), 189-204.

국내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

신명선

본고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 격차 문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전국 대학생들을 임의 추출하여 동일 주제로 글쓰기를 한 뒤 전국 대학생의 글쓰기 수준을 파악하였다. 다음 대학생들 간 글쓰기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역별(서울/경기·인천/지방)·설립별(국립대/사립대)·계열별(문과/이과/예술계)·성별(남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하향 조정되어 있었으며 지역별로 학력 격차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설립별, 계열별, 성별 차이는 점수상으로는 존재하였지만 LQ 지수 단계상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생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 문제는 그동안 국어교육학계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다. 본고를 통해 국어교육학계에 ‘학력 격차’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이슈화되고 본고에서 제기한 추가 연구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핵심어 대학생 글쓰기, 글쓰기 능력, 텍스트 복잡도, 독서지수, LQ 지수, 텍스트 난도, 학력, 학력 격차

ABSTRACT

A Study of the Gap in Writing and Academic Abilities of Domestic College Student

Shin Myungsun

This paper examines the writing ability of Korean college students as a basis for discussing the academic ability gap. First,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to write on the same topic, and their writing level were identified. Next,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writing 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by region, establishment, departments, and gend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writing ability of Korean college students was downgraded. They also showed a gap in academic ability by region. However,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scores by establishment, division, and gender, they were not significant in terms of LQ index level. It is hoped that “academic ability gap” will become an issu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KEYWORDS College Student Writing, Writing Ability, Text Complexity, Reading Index, LQ Index, Text Difficulty, Academic Ability, Academic Ability Gap